

# 2014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10.30(목) 15:00~16:30

##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27일 뉴스1번지 도둑 뇌사 사건 판결 논란 확산 내용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에서 상해죄를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와 대담 중에 붉은 바탕의 큰 글씨로 뉴스속보 '세월호 선장,항해사등의 검찰 구형량'등 자막이 대담을 마칠 때 까지 계속 나와 대담 내용에 집중이 안 되어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이 프로에서 정당방위논란에 대해서 대담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좋았음. 이렇게 심층취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출연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18일자 한전 단전관련 문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가장 약한 것이 자율협약이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순임. 자율협약이라는 것은 다른 언론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영진과 채권단이 함께 협의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법원이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해버리고 기업을 법원이 관리하는 것임. 그렇다면 경영 입장에서는 자율협약을 선호해야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고 일반시민에게 피해가 큰 법정관리로 가려는 경영인이 많음. 이유가 뭐냐면 채권단이 결국 자율협약의 형태로 가는 족족 경영권을 빼앗게 됨. 오너들은 자율협약으로 가서 경영권을 빼앗기느니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유리하게 됨.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다른 매체가 특히 신문들이 많이 다루는데 뉴스Y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함(이용우 위원)
- 6일 '맹찬형의시사터치' 세월호 수사 최종 발표...해경, 언딘과 유착 일부 확인" 관련기사에서 검찰이 6개월여 동안 진행해 왔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 목포123 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 됐고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해경 차장 등 3명이 불구속기소 등 모두 154명이 이 사고로 구속되었음. 또한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연씨 일가와 차명재산 추적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목포 123 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은 국가의 직무 소홀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과 목포 123 정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검찰도 인정했듯이 '판례와 법리상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7일 '뉴스 브런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4조1천억 관련기사에서 삼성전자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4조1천억 원으로 집계된 3분기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었던 지난해 3분기의 40%선에 불과하다'는 소식과 실적부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무선사업부 실적의 큰 폭 감소를 주 요인으로 꼽고, 4분기에 스마트폰은 애플 등 경쟁사 제품의 본격 출시에 중국업체 중심의 저가폰 가격경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전망을 전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적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품의 차별화(브라질 멀티 유심칩 적용, 인도의 교육열 감안 교육관련 앱 적용 등),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평택 단지에 앞당겨 15조원 투자 등의 연속기사가 이어졌으면 좋았을 듯함(성낙용 위원)
- 12일 '비즈톡톡', '하반기 취업의 모든 것 에서 면접 제대로 하기, 재능마켓 재능 구매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디자인 예술계통의 재능을 활용하여 재능마켓을 통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였음. 하지만 재능마켓이 취업 시장에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개했는데 재능마켓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유의할 점과 현재 시장의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괄했으면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3일 '클릭 베스트컷' 보도된 '요우커가 몰려온다' 에서 요우커들이 지금 당장은 관광업이나 내수시장 등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문제점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주로 중국내 건국65주년 경축행사로 포인트가 옮겨가 아쉬움이 남았음(이용진 위원)
- 국정감사 보도내용에서 각 상임위별로 쟁점과 이슈가 있음에도 이를 보도하는데 미흡했음. 국장감사가 20여일 이상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날그날 현장 스케치하듯이 보도되는 것과 달리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보도를 하는 차별화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이용진 위원)
- 29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한달 뉴스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다룬 뉴스는 시의성 있는 보도로 평가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한계를 아동문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준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정확히 무엇이고, 향후 법 시행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원 관계자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최진영 위원)
- 24일 5시 6분에 대북빠라살포 뉴스를 다루면서 '모래 빠라를 살포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25일 살포한다는 것이므로 모래가 아닌 내일이라고 표현해야 함.1. 전날 기사를 수정 없이 새벽에 방송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강대인 위원장)
- 24일 중계수수료 미납관련 보도내용에서 뉴스Y의 논점은 '6억에서 9억까지의

중계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인데 다른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음. 실제내용은 0.9%이내에서 중계사와 매매자와 협의사항이고 실제 복비 수준은 0.4~0.5%라고 함. 이것이 0.5%로 떨어진 것이고 정부에서는 하락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0.5%로 정했다고 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함(이용우 위원)

- 19일 대형마트의 PB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대형마트의 자체상표인 PB상품이 늘어나고있고, 값이싸고 양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라는 내용이었음. 자체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일 것이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안 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값싸고 양이 많은 PB상품을 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반기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서도 맞는 것인지 너무 한쪽만 치우치게 보도한 것은 아닌가 함(이용우 위원)
- 12일 '패널 대담' 북 남북 고위급 접촉 가능한가? 내용에서 박상병, 황태순 정치평론가,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센터장 패널이 참석했는데 북,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됨. 그냥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음. 대북 점단 살포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정부의 입장 등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이 더 있었으면 함(성낙용 위원)
- 12일 '야, 지역위원장 경쟁 계파경쟁 시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정리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었음. 여당은 지지율 하락 시 대안이 있다. 는 내용은 어떤 대안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함(성낙용 위원)
- 종합 뉴스의 경우 중요한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음. 중간에 취재원이나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오후 시사 프로그램과 같이 질의 응답하는 형식은 중요 뉴스 전달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음(양승찬 위원)

## 2) 보도의 가치 신중히 고려하고 속보성 확보해야

- 22일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됐다는 "전북서 딸 성추행 아버지 '친권정지' 첫 결정"보도는 뉴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이런 보도는 자제 했으면 좋겠음. 사건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도 있어야 되겠지만, 밝은 뉴스, 생활뉴스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4일 북대표단 방문 소식을 속보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줌. 하지만 자막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경우 저널리즘의 뉴스 가치가 있는지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북측 대표단이 장어구이를 많이 먹었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오랜 시간동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위의 사실을 기사 내에서 전달할 수 있겠지만 속보 자막으로 처리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 같음. 자칫 이러한 자막은 뉴스 보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10월 28일 저녁 8시 종합뉴스 “불륜 남편 성기를 망치로, 위자료 판결은?”의 경우 그림으로 폭행 장면을 재연 반복하고 변호사들이 나와 토론하는 시사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됨. 저녁 종합 뉴스의 중요 아이템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감(양승찬 위원)
  - 10월 28일 불륜 남편 성기를 망치로, 위자료 판결은? 보도. 의사인 남편이 같은 병원의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자, 처가 남편에게 자해하게 하고, 망치로 남편의 성기를 27차례나 내리쳐 상해를 입힌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음. 하지만, 이 소식이 과연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임. 그저 시청률이나 흥밋거리를 뉴스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전문가 대담으로 까지 이어간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봄(최진영 위원)
  -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뉴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기사 양이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아이템이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시청하기에 편하지 않음. 거의 매일 김정은 뉴스가 나오는데, 10일 뉴스 브런치에서는 김정은의 지도방문과 절뚝거리는 장면을 불필요하게 계속 보여주었고, 11일 출발 640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뉴스와 관련이 없는 장성택의 목덜미 잡히는 장면까지 등장함. 15일 뉴스 브런치 “김정은의 두 여인(리설주와 김여정)은 어디에”라는 뉴스는 제목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뉴스 가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음. 20일 출발 640에서 “리설주 공개석당 대동”, “김정은 비행훈련 시찰” 등이 무절제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는 “김정은 40일 잠행”,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김여정은 어디에” 등 뉴스 가치도 의심스럽지만, 김정은의 일정 보도가 핵심으로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움(최현철 위원)
  - 판교붕괴사고 보도내용에서 타채널과 비교시 현장의 장비투입등 속보성에서는 조금 떨어져 보였음. 판교 공연장 붕괴사고시 6시 35분부터 특집뉴스를 방송했으나 58분경부터 5분 이상 광고로 보도가 중단되었음. 이런 긴급 재난시에는 뉴스를 계속 진행하고, 불방된 광고는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강대인 위원장)
  - 17일 판교 사고가 발생하고 속보를 내보내는데 초반에 일부 방송과 광고 중에는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최소한 사건 당일에는 뉴스시간이 아니거나 광고시간이라도 띠자막으로 속보내용을 전해준다면 시청자들이 실시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음(이용진 위원)

### 3)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10일 13시 뉴스의 스포츠 분야에서 자막, 멘트와 다른 화면 노출(축구 자막 및 멘트인데 야구화면 노출)된 바 있음. 그러나 되도록 화면 노출의 경우는 뉴스

-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화면으로 노출되었으면 하고, 연관성이 있는 화면이 없다면 안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됨(김연화 부위원장)
- 7일 '글로벌투데이' 클로징 인사 후 화면 우측화단에 남성 얼굴 그림자가 남음. 제작 시 주의를 요함(양승찬 위원)
  - '글로벌투데이'의 화제의 영상, 영상에세이 코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앵커 뒤 배경 화면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성기고 제작에 투자가 되지 않은 느낌을 주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배경 화면 그래픽의 개선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판교붕괴사고 보도내용에서 사상자 관련해서 얼마나 다쳤는지가 궁금했는데 자막에서 '10명의 심정지'이라고 나왔음. 심정지는 다른 매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심정지라는 표현이 의학용어인지 왜 나온 것인지 시청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았을 것(강대인 위원장)
  -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사용어 등은 해설을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음. 2일 "우버 비켜"...미국서 한국형 신개념 콜택시 출범보도에서 한국 업체가 우버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법적 논란이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콜택시 서비스를 미국시장에 내놓았다는 보도에서 앵커가 생소한 용어인 우버에 대해서 시청자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12일 '뉴스1번지' 스크롤 자막에서의 모든 뉴스가 실제뉴스에는 다루어지지 않는데 자막의 내용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자막이 있어 아쉬움.(이대로 가면 노년층 70~80% 은퇴 빈곤층 전략, 규제는 공무원 밥그릇? 등)(성낙용 위원)

#### 4) 프로그램기획 및 편성의견

- '21세기 조선 경단녀'의 내용은 아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현안이 돼 있는 문제인데 이와 같은 현황다큐를 많이 다뤄주었으면 함(이용우 위원)
- 11일 '미니다큐오늘' 오전 방송된 '풍성한 가을 공연 속으로'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을에 공연 한편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소개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음. 단지 이슈가 되는 공연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대학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순수 정통 공연들이 상대적으로 소개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음(이용진 위원)
- 뉴스Y는 24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첫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다만 4시30분에 국내최초뉴스와 편성책임자 고지와 함께 시작하는데, 타방송에서는 최소한 애국가 1절이 나오면서 시작해 방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구분이 됨. 뉴스Y에서도 좀 더 구분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임(강대인 위원장)
- 국감내용에서 의원들이 한건 위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도함. 모든 언론매체들이 특집으로 크게 다루는데 국감이 지나가고 나면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

어가고 있는지 후속내용이 없음. 뉴스Y에서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아이টে  
를 뽑아서 정부부처가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점들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등 추후 확인할 수 있는 보도 관행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보도전문채  
널로서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음(강대인 위원장)

- 뉴스Y 메인뉴스의 상징성이 필요함.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고 중요 순으로 구  
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는 오전뉴스, 정오뉴스, 저녁뉴스를  
메인으로 보는데 뉴스Y도 출발640 이라던지 오전, 정도, 저녁을 구별해서 3개  
뉴스를 간판형 종합뉴스로 정시에 방송한다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패널 토론하는 시간과 출연자가 늘어나는 느낌인데 보도채널이 종편과 같은 느  
낌이 나는 듯함. 어느 정도가 보도채널로서의 적정선인지 고민이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메인 뉴스인 8시 뉴스는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음. 이 프로그램이 뉴스Y의  
메인뉴스로 다른 방송사 뉴스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함(양  
승찬 위원)
- 일요일 저녁 1시간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정정당당'의 진행자 신율  
교수가 경쟁사인에서 비슷한 포맷의 '신율의 시사탕탕'이라는 주중 계속되는 프  
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  
유가 있겠지만 후발 주자인 뉴스Y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양승찬 위원)

## 5) 뉴스Y 차별화 전략 필요해

- 뉴스의 특성상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  
이 목적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뉴스 방송은 시청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  
시간 소통 체계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음. 일방적인 정보전달 기능에 더불어 뉴  
스 도중 실시간 문자 및 SNS 기능이 더해진다면 타 방송과 차별화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김연화 부위원장)
- '글로벌 Y' 안에 '글로벌 인사이트'가 무엇을 위한 코너인지 아직도 와 닿지 않  
음. 글로벌 인사이트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함. '뉴스 브런치'도 오전 8  
시에 방송하는 뉴스의 재탕이라는 느낌 외에 왜 '뉴스 브런치'인지 정체성이 애  
매함(최현철 위원)

## 6) 긍정적인 평가, 앵커, 출연자 관련 의견

- 17일 7시 24분경에 공연장 사고일지현황 내용을 다뤘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면  
서 적절히 대응했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음(강대인 위원장)
- 24일 '클릭 베스트컷'에 보도된 '아직 멀기만한 안전사회'에서는 성수대교 사고  
20주년 위령제를 다루면서 아직도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꼬

- 리를 무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보였음(이용진 위원)
- 11일 북 대북전단 향해 총격 군 대응사격보도에서 뉴스Y가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사격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을 높이 평가함.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북한의 위협상황과 안보 문제를 잘 전달한 보도로서, 기자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북한 상황을 촬영하고 보도한 점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돋보였음(최진영 위원)
  - 30일 강원도 스키장 개장 뉴스에서 스키장의 인공눈을 통한 개장 준비소식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기획 뉴스가 돋보였음. 단순한 일기 예보를 넘어 올해 최초 인공 제설작업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들의 겨울 채비를 하게 하는 기획이 눈에 띄었음(최진영 위원)
  - 앵커의 선정 또한 무게를 갖고 경륜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뉴스Y의 간판앵커가 뉴스Y의 메인종합뉴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음(강대인 위원장)
  - 다른 방송사의 메인 뉴스 포맷과 비교해 볼 때 '투나잇 23'은 두 앵커가 뉴스카드를 들고 서서 진행하는 차별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메인 뉴스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진행 방식이 뉴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차원에서 타 방송사의 안정적인 포맷과 비교해서 이점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12일 패널을 초청하여 대담을 하는 것은 패널들만의 토론장이 아니라고 봄.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과 전달력이 필요하다고 봄. '그들만의 대화'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성낙용 위원)

## 7) 홈페이지 등 기타 의견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별 소개 공간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된 양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개별 프로그램을 클릭할 경우 일부 프로그램은 최근 방송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한 반면 일부는 캡처한 프로그램 화면만 제시하거나 아주 오래전 프로그램을 배치해 놓고 있음. '뉴스 현장'은 사진 화면만, '옴부즈맨Y'는 2년 전 동영상 배정되어 있어 개별 프로그램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양승찬 위원)
- 전반적으로 연합뉴스TV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함.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시보기 검색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음(양승찬 위원)
- 시청자게시판의 내용 중에 공감가는 내용이 있었음. 철책근무장면, 매복해서 작전하는 모습들 얼굴하는 포함해서 너무 상세하게 나와 보안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내용에 공감했음(이용우 위원)
- 인터넷이 속도가 느림. 요즘 사이트라고 하기에 너무 느려 점검이 필요함. 인터

넷 검색이 잘 안되서 게시판 중에서 21세기 조선 경단녀를 찾아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음. 결국 네이버로 찾았는데 검색과 인터넷 속도를 점검해보아야 함(이용우 위원)

- 포털 미디어 네이버의 방송사 저녁 메인 뉴스 모음 코너를 보면 '투나잇 23'이 뉴스Y의 메인 뉴스로 설정되어 있음. 8시 뉴스Y 종합뉴스 대신 '투나잇 23'을 네이버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해주기 바람(양승찬 위원)
- . (끝)